

승리의 생활 시리즈 5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

James W. Knox 지음

고 정 인 옮김

승리의 생활 시리즈 5

건전한 교리

Sound Doctrine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21. 3. 27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고정인

펴낸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 81 엘림빌딩 지하1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 ISBN 979-11-971322-3-0

■ 정가 5,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 본서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킹 제임스 흠정역 5판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1

대부분의 교회에는 교인들이 동의하는 내용들을 담은 목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목록은 우리의 믿음, 교리적 진술(doctrinal statement)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각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신념이나 의견을 가진 교회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독자는 성경의 무오성,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동정녀 탄생 같은 그들의 믿음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는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낸 진리에 근거한 그 목록을 가리키며 자신은 건전한 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 목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 구원의 길,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미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에 관한 관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 공통적으로 갖는 또 다른 특징은 위에 나열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건전한 교리라고 부르는 이 교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신학의 중요한 요점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진리를 무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다른 책들에서 그것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교리(doctrine)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에 6번, 그리고 신약에 44번씩 총 50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는 문구를 사용할 때에는 지적이거나 엄격하게 신학적인 내용과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 주고자 할 때 이 용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교리에 대해 올바른 단어를 사용하여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칭의, 심판석 및 보상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고 있고, 천사와 그룹, 그리고 성도의 차이점을 알지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수천 개의 예를 더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올바른 교리라고는 부를 수 있지만, 건전한 교리의 성경적 정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일들이 무엇인지 믿고는 있지만, 그 옳은 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저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침례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 그 누구도 “저는 교회에 다녔었는데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 잘 모르시더라고요.”라고 저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독교를 거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제가 한 작업에 대해 돈을 안 줬어요.”
- “설교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 “회계 담당자가 돈을 횡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지내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올바른 교리로 넘쳐나지만 건전한 교리가 부족하므로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지식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부분과 그 사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부분 사이를 꽉 막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로부터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역시 배워야 합니다(에베소서 5장).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분의 모범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빌립보서 2장).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온전히 이해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확신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요한일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결과나 열매 없이 사실만을 원하는 듯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따라 걸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가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건전한 교리에 대한 네 가지 언급은 모두 묵회 서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부가 되는지 알려주고,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교회를 바로잡는지 알려주며,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및 골로새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절맞게 살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목회자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 참고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8절-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줄 우리가 아노

라.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증하는 자와 그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이 교리는 내게 말기신 복음 곧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우선, 여기에는 끔찍한 죄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죄들은 전부 건전한 교리와 반대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이러한 죄로 가득 찬 삶으로부터 의로운 삶으로 옮겨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언급하면서 죄의 권능과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지 않는 복음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거나 사도들에 의해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읽은 구절이 건전한 교리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휴거 날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든지, 다니엘 9장의 해설이라든지, 방언 및 은사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리와 영광스러운 복음의 반대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만약 누군가 건전한 교리를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
- 그들의 삶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생각하지 않은 채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
-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다른 이의 인생을 빼앗아 가면서도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
-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음행을 일삼는 자(현대 영어에서는 whoremonger라는 단어의 의미를 축소시켜서 매춘과만 연관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 단어의 의미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더럽히는 자와 그 행동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인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 이 문구는 기본적인

로 성적 부도덕함을 다루고 있지만, 더불어(with)와 남자로 번역된 mankind(인류, 인간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부도덕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의 인생을 빼앗는 사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노예처럼 부려 먹거나, 옳지 못한 의도로 남을 정복 또는 지배하는 사람을 납치하는 자
- 모든 면에서 거짓인 거짓말하는 자
-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맹세하면서 거짓말을 할 정도로 대담한 위증하는 자

위에 나온 목록은 제가 여태껏 본 어떤 교리적 진술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이 건전한 교리와 상반되는 거라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에 의해 만들어진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롭고 순종적이며 경건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구별될 것입니다. 그들은 삶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며,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주님께서는 살인이라는 죄명 바로 옆에 거룩하지 않고 속된 태도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수치스런 언어, 욕설, 저주, 더러운 이야기, 소문, 험담을 퍼뜨리는 것, 악한 사귀를 하는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큼의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속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인에게 음행을 일삼는 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테지만 자신이 즐겨보는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즐겨 듣는 노래,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자주 입는 몸이 드러나는 옷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일치하나요?

여러분의 차를 수리해줬지만,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창조론을 믿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건물의 주인은 여러분이 문에 붙여놓은 성경 구절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임대료를 제때 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목회자가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왜 그가 결혼 생활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합니다. 음식점의 종업원은 그녀에게 무례했던 손님이 남기고 간 복음 소책자를 전혀 읽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건전한 교리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1981년부터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프로그램을 듣고 흥미를 느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일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제 사무실을 들여다보았는데 벽에는 추잡한 그림이 붙어있고, 책상에는 빈 맥주 캔이 굴러다니며, 저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라디오에서 전했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에 대한 설교나 마태복음을 제대로 설명했던 강해가 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지적 진리를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일상생활과 개인의 기록함에 관해 가르치는 것 역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디도서 2장에서 몇 구절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1-2절).

1절과 2절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 두 구절을 분리해서는 안됩니다. 건전한 교리는 한 사람의 생활 방식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일곱 교회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신비한 교리에 대해 설명해주지도 않습니다. (영어 단어 man은 남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녀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3절에 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1-2절의 man을 남자로 함정역에서는 남자로 번역했으며, 이 번역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저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 역주)

성경은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자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는 방법과 올바르게 영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믿음, 사랑, 오래 참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일곱 살이었을 때,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을 버리고 짐을 싸서 떠났고 어머니는 그럭저럭 살아나가기 위해 애썼습니다. 여러분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에는 갯단에 들어가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스무 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찾아 다녔고 만나게 되

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때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들아, 나는 훌륭한 아빠란다. 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고 동정녀 탄생과 보혈의 속죄를 믿는다. 그리고 나는 구원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장난하냐며 아버지에게 대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아버지가 알고 있는 교리가 옳으므로 아버지를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 찼지만 건전한 교리는 모르고 있는 아버지를 경멸하시겠습니까? 정답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성경에 관해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리와 관련해 계속해서 디도서 2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며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3절).

건전한 교리는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의로운 삶으로 정의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여성들이 건전한 교리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려면 다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

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3-5절).

신성 모독은 존경이나 존중의 부족입니다. 이 구절들은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성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 목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기록한 것이며, 자신을 절제하며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것입니다.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사탄은 형제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10). 우리는 주님께 다른 사람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은 추잡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숙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처럼 불건전한 말은 그분을 무시할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늘 왕국에 있는 자리에 앉을 만큼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술을 마셔야 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절제할 것입니다.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들이 가르쳐야 할 선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 용어를 남발하는 자들의 말을 맹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로한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그들이 독신이든지 결혼을 했든지, 한 아이의 엄마이든지 자녀가 없든지, 또는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복음은 무시됩니다.

둘째,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는 “어떻게 사랑해라”라는 방법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사랑해라”라는 해야 할 일만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어떠한 예외도, 변명도, 특별한 상황

도, 다른 선택권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며 기계적으로 행동해서 끝낼 수 있는 명령도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집니다.

셋째, 신중하며. 건전한 교리는 여자에게 신중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신중한 사람은 실수나 악을 피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중한 태도는 주의 깊고 조심스러우며 삼가는 태도입니다. 지혜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야고보서 1장). 잘못을 저질러도 되거나 악에 빠져도 되는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탐구하여 의의 길을 찾으시고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죄로 가득한 어리석은 여자들의 권고를 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디모데후서 3:6).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정숙하고. 이 단어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이 단어는 모든 불법적인 성적 행위로부터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든 성적 행위로부터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며,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부부 관계에서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또한 정숙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체적 친밀함에 관한 주님의 명령은 건전한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가정을 보살피며(keepers at home). 이 구절을 성경적 문맥을 무시한 채 따로 떼어 내어 여성을 집안에 가두는 핑계로 사용하는 남편과 아버지들의 주장이 옳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보살피는 사람(keeper)은 돌보는 자, 감독하는 자, 보호자, 그리고 안내자를 뜻합니다.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keeper)(창세기 4:2)였고,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지키는 자(keeper)라는 생각을 거부했습니다(창세기 4:9). 요셉은 감옥의 간수(keeper)의 눈앞에서 은총을 얻었고(창세기 39:21), 젊은 다윗은 자기 양들과 짐 지키는 자(keeper)를 두었습니다(사무엘상 17:20, 22). 또한, 예복을 관리하는 자(keeper)인 할하스(열왕기하 22:14)와 왕의 삼림 감독(keeper) 아삽, 그리고 동문 문지기(keeper) 스가냐(느헤미야 2:8, 3:29)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영어로는 다 한 단어 keeper입니다. - 역주)

이러한 모든 직책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거나 어떤 대상에 한결같이 가까이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용어는 더 높은 사람의 지휘 아래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 혹은 대상을 지도하고 지시할 책임, 감독할 권한 및 일 처리 방식에 대한 자유가 부여된 사람을 의

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인들(에스더 2:8, 15)과 초막(욥기 27:18), 포도원(아가 1:6), 문(예레미야 35:4), 그리고 감옥(사도행전 16:27, 36)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우리는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라는 시편 121장 5절 말씀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는 여자가 가정의 일들을 적절히 감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선택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건전한 교리가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선택한 열매를 맺으십니다(갈라디아서 5:22; 에베소서 5:9).

일곱 번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우리 세대가 이것보다 더 멸시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화난 여자, 우울한 여자, 이혼한 여자, 정신질환약을 달고 사는 여자, 그리고 쓴 뿌리를 가진 여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합당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나 주님을 기꺼이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으실 것입니다. 순종이란 권위에 복종하고, 명령, 지시 또

는 경고에 맞게 행동하며,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건전한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과 방식을 어기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존중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이웃, 반 친구들은 물에 잠기는 침례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가 옳은 것인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도들이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은 표적의 선물이 사라지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들에게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여성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그에 대해 매우 분노하며 많은 말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지키는 교리들 중 몇 가지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선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선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구원받은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집에서의 의무를

지키며, 공공장소에서 다소곳한 옷을 입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건전한 교리를 정의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자가 이 명령들을 지키지 못할 때, 그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당하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 일하던 여러 해 동안, 휴거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 이상 믿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떠나 결혼을 망친 남자는 한 사람도 없었고,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남편을 떠나 결혼 생활을 망친 여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교리는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리는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들의 행위로 직접 증명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는 한,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를 알고 있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조롱하고, 가정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질서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조롱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입을 세 번째 참고 구절은 디모데후서 4장 1절-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많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언젠가는 일반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믿게 됩니다. 즉, 그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신학적 진리를 믿고, 사람들이 그에 맞게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아내 또는 남편과 함께 어린 아들딸들을 성경을 진리로 믿는 교회와 주일 학교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주일 학교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면 이 가족은 자신들이 좋은 교회에 있음을 깨닫고 기뻐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일반 교리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녀들이 순결한 삶을 살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 역시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일 학교를 다니던 딸이 사춘기를 겪으며 다소곳한 옷 입기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야구 스타가 되고 싶은데 주중에 있는 기도 모임 때문에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불평합니다. 아이들은 새로 나온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최신 히트곡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회와 교

회에서 정해진 규칙, 그리고 교회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최우선인 아내를 남편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데 치러야 하는 대가를 아는 남편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곧 아내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규칙을 주고 남편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교회, 그들이 한때 사랑했던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가장으로서의 결정 권한을 잃어버린 남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친구로 지낸 목사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란 반항하는 딸, 구원받지 못한 아들, 그리고 잔소리하는 아내임을 모른 채 말합니다.

이제 그곳을 떠난 남편은 새로운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같은 일반 교리를 믿지만, 의롭게 살 것은 요구하지 않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왔습니다. 2천 년 전에 성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 두고 또 진리로부터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4절). 그들은 흠페

이지와 전단지에는 성경에서 뽑아낸 올바른 일반 교리가 적혀 있지만 거룩한 생활을 조롱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랑처럼 삼는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는 버린 채 지식적으로 올바른 교리만 있는 교회를 선택할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동의하고, 소돔 사람들이 그러하며 음란물 배우들과 마약 거래상들도 그들에게 동의합니다. 주정뱅이와 성추행하는 자들도, 온몸에 문신을 한 여성과 여장하고 다니는 남성들도 그들에게 동의합니다. 마리화나와 코카인과 같은 마약 중독자 역시 그들에게 동의할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을 이 세상에 동화되도록 부추기고 격려해 줄 수많은 무리가 존재합니다(로마서 12:1-2).

그들은 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고 존경했던 설교자를 지금은 멸시하는 걸까요? 그들이 의로운 삶에 필요한 인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교리에 관한 네 번째 구절은 디도서 1장 5절-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결코 책망 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기록하며 절제하며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금 건전한 교리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으므로 이 구절들에 대해 자세히 해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것 하나를 주목해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영적 리더들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나열한 이 목록에 무엇을 믿느냐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영적 리더의 자질은 모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경건한 행동이란 어떤 것인지 묘사하는 이 긴 목록은 교회 지도자들

이 실천하는 의로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들에 해를 끼칠만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끝냅니다. 그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지도 않고 직장에서 일처리도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관계는 엉망이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차도 고치지 못하는 정비공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자기 머리에 이가 기어 다니고 있는 미용사를 믿으시겠습니까? 또는 노숙자로부터 재정 조언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영도 못하는 구조 대원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깨끗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특성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다니고, 그런 자들을 집사를 임명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주님보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의 10절-13절에서 우리는 왜 교회의 리더들이 도덕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그들 중의 한 사람 곧 그들의 대언자도 이르기를,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를 저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기꾼들이 활동하지 못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려면 탐욕스럽지 않은 리더를 세우면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과 함께 지내 봐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은 진실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삶은 의로 극복됩니다.

이제 디도서 2장 11절-14절을 읽으며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이 구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를 믿는 단순한 믿음에 의

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저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11, 13절) 다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이 혼을 축복하는 엄청난 진리라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교리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사이에는 건전한 교리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에 의한 구원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12절).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에 관하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14절)고 기록합니다.

구원과 휴거 사이에 사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차이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건전한 교리입니다.

2

시편 11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죄를 극복하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을 손에 들고서도 마음에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및 창조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전 장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디도서 2장은 우리에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 때 염두에 두었던 것들을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 맑은 정신으로 하는 생각
- 항상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감정 상태
- 감정 기복 제어
- 신실함
- 너그러운 사랑
- 인내
- 거룩한 행실
- 비난하지 않는 입술
- 정욕을 다스리는 힘
- 선한 행실
- 남편을 향한 사랑
- 아이들을 향한 사랑
- 순결한 삶
- 가정 관리
-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

이 목록은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든 건전한 교리는 교회 팸플렛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요점들 각각은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 설명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동의할만한 몇 가지 기본 진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려면 마음과 생각을 성경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만들어낸 노래, 이야기, 영상이나 정치 토크쇼에 나오는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셔서 우리의 감정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싶다면, SNS에 넘쳐나는 쓸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분노로 끓어 오르거나 하나님의 일들과 그분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육신 안에서 걷는 것보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신실한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영화배우나 가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갈보리에서의 주님의 희생과 인간의 탐욕스러움을 비교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본인보다 먼저 생각하셨던 것과 세상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비교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백 년에 걸쳐 그분의 구속 계획을 진행해 가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 승리의 완전한 열매를 누리시기 위해 이천 년 이상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또 다른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올바른 교사를 선택하면 인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며 일하고 있지만(에베소서 2:2), 우리에게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신 구원자가 계십니다(히브리서 7:26). 그러므로 이 세상의 행로에 사로잡힌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걷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훨씬 더 유익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번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으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다른 이를 세워주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원자께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들을 대신해 진노의 잔을 마셔주신 분께서는 그들에게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헌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남편을 왕좌에 앉히거나 자녀를 신격화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모범을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100%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순결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가족인 교회를 부양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며, 쉴 곳을 제공하십니다. 또한, 셀 수 없는 선물을 내려주십니다.

혹시라도 어느 자매님께서 본인은 남성과 동등하므로 순종하라는 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빌립보서 2:6-8).

요약하자면, 건전한 교리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구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수하신 성품과 그 성품이 그들의 삶을 통해 밖

으로 드러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최악된 사고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샅꾼 목회자들은 그런 육신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자기 부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학교에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믿고, 너 자신을 신뢰해”라는 말을 듣습니다. 상담가는 변덕스러운 남편이나 반항적인 아내에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면 배우자를 떠나세요. 바람을 피워도 됩니다. 이혼하세요.”라고 부추깁니다.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우울증 약 광고를 할 때 정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릴 때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신중하[게 하며](디도서 2:4-5).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 시대에 일어나는 죄를 위해 수정되거나 이 시대에 맞게 내용이 추가된 적이 없습니다. 2천 년 전, 젊은 여성들은 성령 충만한 교사들로부터 신중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경건한 여자들에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옛날에도 그런 것을 배워야 했다면 훨씬 더 타락한 지금 이 세대는 그것들을 얼마나 더 배워야 할까요?

SNS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SNS 사이트에 사진과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신중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감정을 모두 나누지 말라고, 비밀을 다 말하지 말라고, 가슴을 반쯤 드러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허벅지를 노출하지 말라고, 몸을 가리라고, 품위를 지키라고, 스스로를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당신과 남편이 뭐하고 놀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읽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속옷 차림 사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 좀 하며 삼시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폭 빠져 살다 보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봐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며,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노래 또는 음식이 무

엇인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들 자신에 대해 알리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예수님을 알리는 데 썼다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전 애인(혹은 내연남이나 내연녀)이 자신의 별거벗은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나체 사진을 찍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세대는 지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신중함이라고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다 말하지 말고 사생활을 지키세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지 마세요. 다른 여성들에게 남편의 어떤 점이 싫은지 밝히지 마세요. 레스토랑에서 시킨 음식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사이버 세계 속 가상 친구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연로하고 경건하며 거룩한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정숙한 옷을 입고 침묵하며 가족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지 말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정숙하[게 하며](디도서

2:4-5). 제가 어릴 때는 여자 애들에게는 쿠티라는 것이 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자애가 남자애를 만지면 쿠티가 전염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여자애랑 사귀어 보려고 고민하는 남자애는 없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쿠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는 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은 성교육 대신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숙녀처럼 앉고 말하며 걷는 법을 배웠고, 나이에 맞게, 그리고 품위 있고 문명화된 사회에 걸맞게 남자 아이들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사춘기를 겪지도 않은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또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 때문에 성욕이 왕성합니다.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어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순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더럽혀지고 병들며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창녀 같은 옷을 어린 딸들에게 입힙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듣는다면 얼굴을 붉힐 법한 동성애와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광고에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들을 환영한다고 썼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추잡함과 더러움에 둘러싸여 자라면서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보건 수업에서 성에 대해 다뤘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이며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한 교실에 모여있는 곳에서 피임과 생식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성과 관련된 그림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새나 꿀벌을 비유로 들어 적나라하지 않게 설명한 것이었지만, 그 수업이 끝나면 모두들 부끄러워하며 체육 수업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초등학생들은 글을 제대로 못 읽어도 아기를 만드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덧셈 뺄셈은 하지 못하면서 선생님께 자신의 혼란스러운 성 정체성에 대해 털어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보고도 그저 괜찮다고밖에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을 격려하고 잘 하고 있다고 말해 줍니다.

어떤 어머니 자매님은 목회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딸은 정말 착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어떤 악한 남자애가 딸을 속여서 피인 것 같아요.”라고 흐느끼며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딸아이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TV를 보며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키스를 하고 옷을 벗고 함께 침대에 들어가는 장면을 매일 밤 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왜

딸아이가 더럽혀졌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다니요. 자매님, 자매님의 딸은 자매님께서 건전한 교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녀를 방관하는 동안 거실에서 TV를 보며 그 모든 추잡한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딸에게 정숙함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지만, 자매님은 헐리우드가 딸에게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가만 놔 두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아들이 립스틱을 바르고 드레스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매님, 어쩌면 아이가 자라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기가 죽은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것은 자매님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의 아들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매님은 아들이 귀찮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아들 방에 컴퓨터를 놔준 후 한참 동안 내버려 뒀습니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그동안 모든 정상적인 성행위가 담긴 음란물을 보아왔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지루해져서 색다른 쾌락을 찾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부모가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거의 매주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많은 남성들이 온 우주의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복장을 갖춰 입기보다는 낚시 차림으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여성들이 가슴이 반쯤 드러난 옷이나 허벅지가 드러나는 옆트임이 있는 치마, 그리고 몸매가 숨김없이 드러나는 딱 끼는 스킨진을 입고 오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온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없거나 정숙한 사람들과 어울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가 몸이 드러나는 옷을 마음대로 입어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던 곳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건전한 교리에 맞게 살아가는 교회에 가게 되면, 그들은 즉시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고 부적절하다는 걸 느낄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옷차림에 대해 아무도 무어라고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들이 만약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다면 경건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배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순결과 사랑이 그들이 지니고 있던 외설적인 것들과 육신에 속한 것들을 신속하게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들아, 숙녀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라고 말해 주시는 아버지, “딸아, 꼬마 숙녀는 다소곳하게 앉아야지.”라고 말해 주시는 어머니, “점잖은 사람들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안 돼.”라고 말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통제로 인

해 지옥으로 가는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갈 수 없었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경건한 여자들에게 새로 구원받은 여자들을 가정을 보살피는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지시하십니다 (디도서 2:5). 가정을 보살피라는 명령을 생각만 해도 현대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여성은 “나보고 무슨 집 지키는 노예라도 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예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이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을 위해 썼다면 성경을 끔찍하고 오래된 것으로 치부하며 성경의 명령을 거부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커피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6시에 서둘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일이 있어서) 화장을 하며, (일이 있어서) 멋지게 옷을 차려입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히 행

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 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직장에 간 후 온종일 남자 상사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듣고 그대로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후 다시 한 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현대 여성이 자유라고 부르는 일과입니다.

두 번째 예로,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 해가 질 때까지 일하는 남편을 둔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집, 가구, 음식, 옷, 냉장고, 주방도구, 에어컨 및 히터, 교통편 등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벌어들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이런 남편을 둔 여자의 삶을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텔레비전은 온종일 TV 프로그램을 보는 어리석은 여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삶이 억압이며 학대라고 부추깁니다. 생각해 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아내는 편안하게 앉아 TV에 나온 여성 패널들이 남성이 어떻게 여성을 학대하고 억압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이 바로 설교자들이 건전한 교리를 선포할 때입니다!



디도서 2장 5절은 젊은 여자들이 선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저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제가 나쁘게 행동했을 때 발생하는 고통에 대해 알려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어머니는 “올바르게 행동하렴”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만약 성경이 선을 행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이며 성숙한 성도가 미성숙한 신자에게 선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진리가 명확해집니다.

1.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2. 선한 자가 되는 방법이나 선을 행하는 방법은 아무도 모릅니다.
3. 누군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4. 누군가는 반항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5. 선한 것이 있다면 선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6. 선함은 드러낼 수 있습니다.
7. 선함은 의견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8.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리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한 것들을 배우고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리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건전한 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지적인 진리는 참으로 필요하며 모든 성경 말씀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절-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같은 중요한 주제들)만 이해할 게 아니라, 튼튼하고 오래가는 신앙의 기초를 쌓기 위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목회자가 휴거와 재림의 차이를 가르칠 때 그것은 올바른 교리이고, 목회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순결하며 결혼한 후에는 신실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침례에 관한 사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적절한 교리이지만, 술과 거짓말과 증오와 음란물을 삼가도록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가 건전한 교리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교인들도, 그리고 주일 학교 학생들도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다고 해도 더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건전한 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거룩한 기록물이고 영원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디도서 2:5). 이것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선한 책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대와 현대 사회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명령에 반대하는 모든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이 세상의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수개의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의에 반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구절을 읽는 모든 사람은 그 명령을 완전히,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합니다. 이 구절에서 숨겨진 의미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단어는 딱 하나,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남편이 아니라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닌 주님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나가서 일자리를 얻습니다. 이혼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 그녀는 남자 상사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죄인 이혼을 하기 위해 그녀는 남자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가 하는 요구를 토씨 하나 안 빼 놓고 글자 그대로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혼 후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새로운 남자를 만나 간음하기 위해 헬스장에 가서 몸매를 가꿀 때 남자 헬스 트레이너가 제안하는 것을 반항 없이 그대로 지킬 것입니다. 새 옷장을 사러 나가면, 그녀는 그 가구를 설제한 남자들의 결정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의 인생에는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남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한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는 가정 내에서의 성경적 질서를 포함합니다. 자유주의 교회가 건전한 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모더니스트들과 대형 교회들은요? 그들도 거부했습니다. 독립 침례교회들은 어떨까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디도서 2:2) 그리고 왜 여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디도서 2:4-5)? 이에 대한 답변은 하늘의 왕좌로부터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피를 통한 속죄를 배워 갑니다. 그 아이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어른들이 목사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은 어떤 교회 아주머니가 바람피우는 것도 보고, 어떤 교회 아저씨가 사기꾼이어서 다른 동네로 도망치는 것도 봅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 동안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아이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른들이 살았던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갑자기 교회를 떠난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백 명 중 한 사람 정도만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또는 “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흘리셨다는 보혈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할 것입니

다. 그 외에 아흔아홉 명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쟁이와 바람피운 사람, 간음한 사람, 험담한 사람, 위증한 사람, 반항적인 여자와 게으른 남자들에 대해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작 성경에 주어진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의해 모독을 당합니다. 이에 대한 유효한 변명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악한 삶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집에 와서는 아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얼굴이 왜 그러니? 넘어지기도 한 거니?”라고 묻자 아이는 “아, 아빠가 술에 취해서 제 얼굴을 때렸어요...”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아이에게 “아빠가 널 때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었고, 아이는 “아빠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정확한 교리를 알려 주시니 괜찮아요.”라고 답합니다.

과연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교리와 건전한 교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는 여러 번의 외도 경험과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성경 속

사실들을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건전한 교리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 때문에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에 걸맞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경의 기본 사실에 대한 지식은 근본적으로 올바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진보적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한 무엇을 믿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보수적인 교회는 올바른 진리를 믿는 한 어떻게 사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주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풀러 인스티튜트(Fuller Institute)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나온 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와 패서디나에서 열린) 두 번의 컨퍼런스에 모인 1050명의 목회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목회자들은 복음주의자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주의자란 로마 가톨릭과 연관된 성당 또는 교회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1050명 모두 다 주변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과로, 교회 내의 갈등 또는 도덕적 실패로 인해 사역을 떠난 가까운 동료나 신학교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떠난 분들의 비율이 최소 1:1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회중 앞에 서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선포하던 2000명이 넘는 설교자 중 절반이 더 이상 그런 간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중들의 존경심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90%의 목회자들은 매주, 심지어 매일 매일 피로함을 느끼며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쳐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들 대부분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그중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설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갓난아이들 같은 신자들을 양육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도랑을 파고, 지붕에 타일을 깔며, 콘크리트를 붓고,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싸우는 교인들에게 목회자가 매주 지치고 피곤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스트레스, 수고, 고난, 노동, 피로. 그게 인생입니다.

목회자 중 57%(590명)는 더 좋은 직장이 생긴다면 그곳으로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교회의 목회자 중 절반 이상이 사역을 그만두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보다 사역이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바로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샅꾼들입니다! 이 말은 설교자들 중 거의 60%가 “트럭 운전보다 목회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

니다.”라고 답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 중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목회자 중 81%는 정기적인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교인들을 멘토링하거나 그들의 신앙의 기초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내용을 가르치려는 효과적인 노력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즉, 열 명 중 여덟 명의 설교자들이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 건물을 기독교 친목 모임 단체에 팔아 버리거나 자선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 교회들 대부분은 신약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매우 유사한 교리적 진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강단에 선 사람부터 설교를 듣는 사람까지 아무도 그 교리적 진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회 모임의 장소 또는 정치적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며, 그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상이 그분을 달가워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너무나도 잘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목사들 중 72%(764명)는 설교나 공과 준비를 할 때만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지 38%만이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려고, 또는 재미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야 교회에 가는 사람 대부분이 왜 교회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지 이유를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케팅/심리학 기법들, 화려한 조명, 최신 음악을 쓰는데도 인생을 바꾸는 힘이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강단에 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다닌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믿지 말라고 가르쳤고, 참석하는 모임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목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자신조차도 지키고 싶지 않은 규칙과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경고를 담은 건조하고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책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대체 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급여가 꽤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일한다고 해서 녹초가 된다면, 차라리 실제 직장에 다니는 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동료 회사원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71%(802명)의 목회자가 매우 지쳐있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매주 그리고 심지어 매일 피로를 넘어서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갈라디아서 5:22). 사역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감정적 어려움을 상세히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다윗, 바울, 엘리야, 그리고 침례자 요한 역시 깊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약하고 여성적인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자신과 같은 연약함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서 느끼는 아픔과 같은 아픔을 느끼는 목회자에게 끌릴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건전한 교리가 맑은 정신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열 명의 목사 중 일곱 명이 매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건전한 교리가 신중함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목회자 중 70% 이상이 매주 넘어질 수가 있나요? 이 질문은 때때로 찾아오는 괴로운 시절이나 가끔 왔다가 사라지는 슬픔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들은 매일 매일 우울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은 자신의 삶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 바친 자를 비참하고 영원한 슬픔에 처하게 내버려 두는 무능하고 힘이 없으며 무관심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자는 도대체 어떻게 청중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그들의 혼과 목숨을 바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걸까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도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의 강단에 설 수 있고, 안내 봉사자들은 방문객들에게 그들 교회가

주장하는 올바른 교리를 기록한 주보를 나눠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곳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세속적인 상담가나 대중 가요 가수가 전하는 “아아, 슬프구나. 내 마음은 온종일 아프고 삶은 너무나도 힘들니 우리 다 함께 우울해져 봅시다.” 같은 메시지만큼이나 절망적이며 형편없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모독을 받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더 절망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한 목사들 중에서 75%(790명)는 교회를 이끌고 관리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기에는 자격이 안되거나 본인이 수료한 신학교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단지 사람이 너무 좋다는 이유로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은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정하다고 해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마취 전문의에게 마취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을 잘 이해해 준다는 이유로 기본도 안 돼 있는 배관공에게 동파된 수도관을 맡기시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파일럿이었고 아들에게 비행기를 넘겨줬다고 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혼보다 치아, 건강, 수도권, 여행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위해 사역하는 우울한 목회자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심한 말을 나누는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가르친 교수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 배우는 회중들도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설교자가 친절하고 다정하며 그들이 징징댈 때 공감하며 들어주는 한, 그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체 요새 누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쓰신 기록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디도서 1:6-9절).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디모데전서 3:5)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 중 38%(399명)는 이혼했거나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동을 성추행한 성직자를 변호하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목사의 결혼 실패를 변호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두 범죄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하

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여 목사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이론적 근거를 동
일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
다. 복음주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40%가 주님의 교회에서 일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사역합니
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무시합
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인 목회자에게 충성하
기 때문에 이를 허용합니다. 신성 모독이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
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사랑한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세상이 그러한 종교를 신
뢰할 리가 없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문에 응한 목사들의 77%(808명)는 결혼 생활
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성경의 네 곳에서 건전한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데, 좋은 결혼 생활은 그중 세 구절에서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5명 중 4명 정도가 건전한
교리를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에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
다면 회중에게 무엇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손에 높이 들고
그 안에 답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화평과
기쁨을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이 전하는 설교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결혼을 제정하시고 거룩히 여기시는 주님을 대표하는 100명의 목회자
가운데 77명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가장 잘 드러내는 기초적인

생활에서조차 기쁨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떤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 가장 충격적인 조사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고 다른 부업 없이 목회에만 전념하며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목사의 30%(315명)가 교회 성도와 바람을 피우는 중이거나 충동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역겨우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사실이 밝혀지거나 혹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강단에 서서 매주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10명 중 3명의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시 주장하는 교회의 어떤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이 관계는 그들이 간음을 범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가며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옷을 벗습니다. 한 여자도 옷을 벗습니다. 그들은 함께 침대에 누워 텅습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나옵니다. 옷을 입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그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 주 일요일에 그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그 앞에는 그와 함께 벌거벗고 텅 굴었지만, 지금은 무릎에 성경책을 고이 올려놓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30%나 되는 목회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인정한 것입니다.
10명 중 3명이 말입니다.

이제 왜 교회가 죽었고, 생명이 없으며, 지루하고, 육신에 속해있으며, 능력이 없고, 무시당하며, 잊혀졌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간음한 목사들이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 하나의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간통을 범한 여자의 남편이나 아버지의 가정은 깨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인 중 의로운 사람들은 간통을 범한 목사를 쫓아낼 것이지만,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에 교인 대부분은 환멸을 느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그 목사의 간음을 복음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로 씹먹을 것입니다. 교인이든 교인이 아닌 사람이든 그 누구도 그 목사의 교리적 견해가 무엇이었는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간음을 저지른 설교자가 바람을 피운 상대인 다른 남자의 아내와 함께 동네를 떠나 자신의 아내가 이혼해줄 때까지 다른 일을 하며 중간중간 부흥 집회도 열다가 애인과 결혼

식을 올리고,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 이전에 목회했던 곳으로 부터 채 20키로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거나 아예 다른 동네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들은 모두 건전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용서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라도 그랬을걸요.”, “글쎄요,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되겠어요.”, “사모님이 사모님답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이 아니죠.”, “흠,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등등 타락한 자들이 자신의 더러운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싶을 때 내뱉는 바보 같은 말들을 할 것입니다.

죄를 용인하고 성경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그 목회자가 킹제임스 성경이 올바르다고 믿고, 올바른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이단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중요한 건 교리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며,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리 이상의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건

전한 교리입니다.

설문 조사의 마지막 질문에서 이러한 비참한 답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 중 단 26%(270명)만이 정기적으로 주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고 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급여를 받는 풀타임 전문 목사 중 74%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며,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음을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반대세력이 뒤집어쓴 혐의가 아니라 목회자들 스스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한 목회자와의 대화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주님께 마음과 시간을 드려 헌신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읽으시나요?”

“설교를 준비해야 할 때만 읽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엉망입니다.”

“기분은 어떤가요?”

“저는 보통 우울함에 빠져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매일 무엇을 기대하며 사시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와 매주 상담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집니다. 그 자매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이혼할 것 같아요.”

“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급여가 꽤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독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타락한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과 국가가 이 모양 이 꼴로 타락한 이유입니다. 이는 성경이 전파되고 건전한 교리가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진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나 그룹(Barna Group), 포커스 온 더 패밀리(Focus on the Family), 그리고 풀러 세미너리(Fuller Seminary)도 공동으로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요일 아침 예배 외에 다른 교회 모임이나 설교에는 평균적으로 일요일 아침 예배 참석자의 25%만 참석했습니다. 즉 복음주의

교회에 참석하는 4명 중 3명이 일주일에 딱 한 시간 드리는 예배로 원하는 것을 전부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 1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매달 목회를 떠납니다. (이는 꽤 높은 숫자입니다.) 세 가지 주요 이유는 도덕적 실패, 영적 소진, 교회에서의 분쟁이었습니다.
- 50%의 목회자들의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끝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 목회를 시작하는 신학교 및 성경 학교 졸업생의 80%가 첫 5년 이내에 사역을 그만둡니다.
- 그만둔 목회자 가운데 50%를 조금 넘는 사람들은 누가 교회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강제 퇴출당했습니다. 대부분은,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춘 인물이 회중을 지배했고 목사의 영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 중간에 그만둔 목회자 중 24%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교회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분쟁을 겪고 있었고 목회자의 접근 방식으로는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 14%는 교회가 그들의 리더십, 비전, 가르침 또는 그들이 만들어 보려고 했던 변화를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 8%는 교회가 전임 목사를 지나치게 존경했고 새로 부임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5%는 목회자를 그만 둔 가장 큰 이유는 적절한 인간관계 능력이나 또는 공감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1500여 개의 교회가 격변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처 받은 마음, 깨진 가족, 그리고 낙담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셀 수조차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는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운명,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크고 흰 왕좌 심판의 차이, 또는 부활에 관한 다른 견해 같은 차이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1500개의 교회가 누군가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리는 알고 있지만 건전한 교리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처음으로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들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협에 처하게 되고(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이혼 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5:32). 오직 너희 의사 표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5:37).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5:44).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 시옵소서...(6:12-13).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6:33). 너 위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7:5).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바르게 사는 삶, 거룩한 행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교리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18절에 기록된 다음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doctrine)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교리였습니다.

요점은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교리에 관해 언급하는 구절을 찾아보면, 개인적인 행동과 의로운 생활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잠언과 에베소서의 교리와 경륜의 차이를 짚어내는 훌륭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멋진 능력입니다. 그러나 쉬는 시간에 그 형제가 복도에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와 주먹을 째 쥔 채 말다툼을 하고 있다면 이는 성경 공부의 유익을 모두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형제자매들은 나머지 공부 시간 내내,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복도에서 무슨 일로 인해 다툼이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끝나면 그 누구도 “공부 시간에 배운 모든 구절 잘 받

아직었지? 집에 가서 복습하고 싶어지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형제들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대체 그게 다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네. 정말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니까.”라고 말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아내는 입이 근질근질해져서 “내가 누구누구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요. 쉬는 시간에 복도에 있었으니 무슨 일 때문인지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부족하면 교리는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남자와 여자가 죄 없는 삶을 사는 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승리의 방법과 풍성한 삶에 수반되는 모든 기쁨은 16절-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죄의 행실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입니다. 만일 당신의 교리가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지 않았고 당신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것은 건전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교리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건전한 교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

우리는 건전한 교리에 대한 4개의 성경 구절 모두 올바른 행동, 의로운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된 진리를 알려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모든 일에서 그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pattern)으로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 거대한 건설 회사의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회사는 작업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을 신중하게 세울 것입니다.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 세밀한 지시사항이 담긴 자세한 설계도를 작성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참가자가 미리 계획된 그 본(pattern)을 따르는 경우, 그들의 노력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한명 이상이 계획을 잘못 이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변경하면 전체 작업이 방해받거나 심지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린 딸의 원피스를 만들 준비를 하는 행복한 주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탁을 깨끗이 치우고 여러 가지 천을 그 위에 올려 놓은 뒤 맨 위에다가 선과 화살표가 가득한 도면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이 도면을 본(pattern)이라고 합니다. 도면에 적힌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기만 하면 딸에게 딱 맞는 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침을 무시하거나 선대로 천을 자르지 않으면 원피스를 완전히 망쳐버리거나 뮤직비디오에나 나올 법한 요상한 드레스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의 장인어른은 판아메리칸 항공을 위한 공항을 건축하셨습니다. 노년에 장인어른께서는 중산층 가족을 위해 소박한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천재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떨어지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자신 앞에 놓인 본을 정확하게 따를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장인어른은 무엇이든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와 아내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재봉사가 아니었지만, 그

렇다고 무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들에게 주어진 계획에 따라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둘 다 자신의 딸들을 위해 멋진 옷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을 따라 살면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에 맞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은 주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기 때문에 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선한 삶의 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설계도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를 벗어나거나 수정하거나 한두 페이지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초보 그리스도인을 열매를 맺는 성도로 바꾸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옷을 만들 때 지시대로 줄을 따라 자르고 바느질하는 것처럼 성경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본을 수정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성경과 그분의 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통해 본을 주셨습니다. 그 본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우리가 그 본에 주의를 기울이면 계속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한 형제가 있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란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형제 모두에게 그들이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참된 본을 주셨으며, 그 본을 따라 살 때 둘 다 동등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에 의해 길러진 한 자매

가 있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끔찍한 학대를 당하며 자라온 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동일한 설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둘 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필요 없고, 자기혐오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일치하는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팀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pattern)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예배할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해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전까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고, 헌물과 희생을 드리는 장소도 없었으며, 그런 건물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한낱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스스로 감히 설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양식(pattern, 본)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재료, 모양, 치수, 그리고 건축 수단까지 주셨다면, 사람들은 그분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곳에서 그분의 눈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술이나 초인적인 힘이 필요하지 않았고, 특별한 훈련이나 긴 연습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단지 양식(본)을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요한복음 4:23).

이제 민수기 8장 1절-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

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등잔들에 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으로 빛을 주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와 같이 하여 등잔대의 등잔들에 불을 켜서 등잔대 맞은편으로 비추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는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으며 그것의 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꽃들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 주신 양식(pattern)에 따라 그가 그대로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황폐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분을 예배할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 안에는 조명이 단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조명은 일곱 개의 등잔대의 등잔들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 등잔대는 특정 물질을 사용해 특정한 높이와 특정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꽃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특정한 종류의 기름만 태워 빛을 내야 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등잔대를 만들어 본 사람이 없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그들 중에 금으로 꽃을 만들어 본 사람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완벽한 기름을 소유한 약제사는 그들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양식을 정확하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랐을 때 그들은 부족한 기

술을 극복할 수 있었고, 부족한 경험을 채울 수 있었으며, 그들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각 성도 모두에게는 구원받은 날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고, 단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위해 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심의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살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걸어야 한다고 명령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받은 교육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에 100%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모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햇불이 등잔불만큼 좋다고 느꼈다면, 7개의 등잔대가 아니라 한 개의 등잔대만 써도 된다고 다뤘다면, 그리고 금 대신 황동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주장했다면, 그들의 일과 노력은 헛되었을 것이고 주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의견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더 넓은 관점으로 보기 위

해 그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좋을 대로 선택하라고 제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철학과 모든 헛된 속임수를 무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활함과 간사함을 도외시하고 오직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모든 추론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6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성소와 참 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성막은 주께서 친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터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 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 준 양식(pattern)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분(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이미 살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지침에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며 사람들을 예배 과정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가 들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식은 모두 말씀에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열두 살 때 이미 성전에서 히브리 율법의 박사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 중 그 누구보다 교리의 모든 요점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시는 동안 교사들에게 가르치셨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자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

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두개인들의 거짓에 맞서고, 바리새인의 잘못을 반박하며, 서기관들이 깔아 놓은 함정들을 제거할 수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분의 희생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 없는 희생을 바치실 수 있었습니다(요한복음 8:29).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완전한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의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본은 단순한 지적 성취가 아니라 성경적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리는 지식과 관련이 있지만 건전한 교리는 그렇게 알게 된 교리를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위선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당신이 주님께 불순종해도 되는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사시던 시대의 통치자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

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성경적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일일이 지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친구들 앞에서 유다에 있는 권위자들의 모든 결점을 지적하실 수 있었지만, 결코 단 한 번도 그들의 실패를 언급하며 실패를 정당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더 많은 오류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제자들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결점과 결함을 발견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 주위에 있던 어떤 죄도 그분이 죄를 짓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올바르게 사용된 것. 교리가 건전한 교리와 결합된 것. 이것이 본입니다!

어떤 남자는 아내가 자신의 영성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는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자신의 남편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성경 말씀을 혐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녀는 그녀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불의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후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에게 상처 준 형제자매들에 관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바쳐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크신 권능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해주신 남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속에서 나와 그분을 만나니라(마가복음 5:2).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이 사람은 묶을 수 없었고(3절), 밤낮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5절).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6-8절).

주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를 쫓아내어 마귀에게 붙들려 있던 자를 해방 해주셨으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냈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15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을 위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마귀 들렸던 사람이 그분께 간구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18절).

주님의 답변은 놀라우면서 동시에 교훈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네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붙잡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고하라, 하시니(19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주님과 함께 바다를 향해하고 여행하기보다는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 하신 일을 고하라(tell,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덕택에 새롭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주어진 이 구절들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후, 성경 교사들은 이 내용을 셀 수도 없이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운대로

해야 합니다.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37절부터 읽어 보면 그 남자가 구원받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의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가 주님께 한 요청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무어라고 답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응답이 성령님에 의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주의 깊게, 그리고 놀라움으로 주목해보아야 합니다. 39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고하라(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또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누군가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신성모독자인 것입니다. 그의 입은 진리를 말한다 해도, 그의 삶은 그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자주 욕설과 쓴 뿌리로 가득한 말을 주절주절 내뱉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술 취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이 술 취한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이 담긴 성경 구절을 줄줄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협박하는 몸동작을 취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대부분 정확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들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에 갔다가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따라 살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내를 무례하고 잔인하게 대한다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게 됩니다. 한 엄마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송가를 부르고 헌신적인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집에서는 남편에게 반역하며 뒷담화만 일삼고 있다면, 그녀는 자녀

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서 보이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두 명령 다 불순종하는 것만큼 큰 오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piety, 경건한 신앙)을 보여...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긴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말할 때의 효를 영어로 filial piety라고 합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볼 때 piety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piety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독실한 신앙, 경건하고 수준 높은 믿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저자는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주)

화난 남자와 완고한 여자는 소리높여 “아니, 목사님은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라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간절히 원한다면 집안에서의 잘못된 모습을 단번에 멈출 수 있습니다. 한 예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어떤 집에서 욕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남편은 고향을 지르고 으르렁댑니다. 아내는 말을 자르며 쏘아붙입니다. 아이들은 못 들은 척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으로 가득 차 괴로워하며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아빠 방의 방문과 엄마 방의 방문이 쿵쿵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벽에 걸려있던 액자가 흔들립니다. 불은 다 꺼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을 참지 못하며 다음에는 어떻게 싸워 이길지 전략을 짜면서,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님께 싸움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면서 힘겹게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모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갈 준비를 하라며 다그칩니다. 네, 맞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무섭도록 고요한 분위기 속에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빨리 차에 타지 못합니다. 남편이 기다리면서 화를 참는 동안, 그녀는 세 아이의 이를 닦아주고, 세 아이의 머리를 빗겨주며, 성경을 챙기고, 방 불을 끄는 등 정신없이 바쁩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는 남자는 가정의 머리라는 성경 구절을 생각하며 차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남편은 분명 가정을 보살피는 것은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성경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온 아내가 한 명씩 일일이 안전벨트를 채워준 후 조수석에 앉자마자 남편은 차를 출발시키며 “대체 여태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때문에 교회에 늦겠어!”라며 욕박지릅니다.

그리고 싸움은 다시 시작됩니다. 서로에 대한 모욕, 비난, 어제 퍼부었던 말들의 재방송,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내가 애초에 왜 그랬는지,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러는지 등등 집 앞에서 교회 주차장까지 이 전쟁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혀는 즉시 통제 아래에 놓이고, 얼굴은 밝아지며, 그들의 전체 행동 방식이 변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인사를 건네고, 성도들을 향해 미소를 짓고, 악수하며, 포옹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하니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주님께서 내 빛이 되신다고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은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약혼을 발표한 커플에게 격려의 말까지 전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 이런 예를 들었냐고요? 모든 구원받은 남자는 원한다면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여자는 원한다면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원한다면 성경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싸움을 멈출 수 있다면 집에서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장소에서 입을 닫고 있을 수

있다면 사적인 장소에서도 입을 닫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실패와 패배와 죄가 있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세상이나 마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육신에 자발적으로 굴복했을 때 실패와 패배와 죄가 벌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차장에 서서 목회자 흉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다가오는 걸 보면 하던 말을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있는 남자는 아내가 집에 오는 순간 컴퓨터를 끌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아이는 엄마가 방에 들어오면 바로 하던 욕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piety, 신앙)을 [보이는 것을]...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맙시다.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piety, 신앙)을 [보이는 것을]...배우게 하라.

4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6번, 신약에서 44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리는 항상 배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는 단어는 네 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 한 번도 신학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지적 능력을 활용해 습득한 사실들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경속 진리들에 대해 언급할 때 쓰이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말할 때에만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함께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 곧 그 교회가 온갖 문제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 문제, 교리적 오류, 법적 문제, 영적 선물에 대한 혼란 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4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다음과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류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삶과 교회에서 겪게 되는 실패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될 거예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어 보면 그 조언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5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고 서로 간음하고 서로 이혼하고 서로 흠쳤지만,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통해 그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소유한 것보다 뛰어난 지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나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제멋대로이고 죄로 가득 찬 회중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날짜, 시간, 장소를 알고 있었고 게다가 올바른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에 반응했고, 이웃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내가 그들을 굳게 세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내는 퀴즈를 통과한 어린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사도를 통해 기록된 이방인에게 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7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식이 풍부하며 굳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있고 성령님의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구원과 그들이 소유한 능력에 대해 이토록 놀라운 간증을 지닌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면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성경의 진리에 대해 많이 아는 것으로 유명하고, 갖고 있는 영적 선물들로 칭찬받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된 교인들도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일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성령님께 통제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고, 모든 지식과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에 속한 갓난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었고, 육신을 따라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했으며, 육신의 지배를 따라 영적인 선물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엉터리로 가르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얻어맞고, 돌을 맞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

도에 가져오기 위해 온갖 일을 겪은 그가 기독교의 깊고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실패했다고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 그리고 피의 속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는 또한 재림에 대해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귀중하고 중요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들에게 젖이 아닌 음식을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식과 선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의 음식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행동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이 육신에 속하였다고 가혹하게 비난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성적인 죄, 타언어의 잘못된 사용, 탐심 또는 술 취함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놀라셨나요?

하나님께서서는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대해 100% 알고 있다고 해도,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누릴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끔찍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다른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는 가족들, 다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을 형제들, 다른 자매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자매들, 배우자에게 한 서약대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 부부들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찬송가를 불렀고, 기도를 드렸으며, 설교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고치지 않았습니니다.

분명히 교리는 젖이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베드로전서 2:2). 그러나 건전한 교리는 우리가 먹을 음식입니다.

만약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만약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휴거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전

해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무언가로 인해 인정받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후의 많은 사람이 겪는 문제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려는 마음을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교만과 오만, 거만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행한다고 하는 많은 선한 일은 자신이 받을 기쁨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었으면 하는 영광만을 더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박국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젖을 먹는 갓난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육신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수련회에서 열린 성경 구절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할지도 모르지만, 다음 해에 들어간 대학교에서는 주정뱅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영적 선물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

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분열적인 태도는 수 천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선호하는 목회자나 설교 스타일이 있지만, 어떠한 진리든 사랑해야 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선호하는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나 교회가 무엇을 더 집중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성향에 맞지 않는 모든 모임을 비난하는 것은 어린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경우에만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지역 교회의 목회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온라인 설교자만큼 강해를 잘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5-7절).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와 직접적으로 함께 하지 못했지만, 바울을 인도하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날 아볼로를 통해 예수님께 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아볼로를 인도하신 공통적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맡고 있는 사역이나 지니고 있는 영적 선물은 각각 다르지만, 그것들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준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대한 사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자신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 정도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제가 여러분을 가리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 하더라도 그 사실이 여러분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로 인해 영광을 얻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수 세기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인정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의 엄청난 수고를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하고 활기찬 교회는 사람들의 칭찬을 탐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교제의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기초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기초를 쌓기 시작하면, 하나의 기초 위에 놓인 위대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단합하여 일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영역이나 건물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함께 찾아보며 이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다시, 주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12-23 절).

첫째로, 전통적으로 전해져 온 기본적인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리스도는 심판석에 앉아 계십니다.
2.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3. 각 사람의 일이 시험을 받습니다.
4. 만약 누군가의 일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면 그는 보상을 받습니다.
5. 만약 누군가의 일이 나무나 건초나 짚이라면 그 일은 불에 탈 것입니다.
6.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내용의 앞뒤 문맥을 볼 때 주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앞의 구절들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의 구절들 역시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구령에 관한 자리이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자리이기를 바라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금액에 관한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3장 전체를 확인해보면 (이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님에 대해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두가 구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교회의 일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를 처음부터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주어야 하지만, 모두가 큰 금액의 헌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3장의 문맥대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너와 다투었던 그 사람과 화해했느냐?”

“왜 그 친구에게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느냐?”

“왜 한 번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했을 때 왜 너는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못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대할 수가 있었느냐?”

“왜 모든 것이 항상 너 중심이어야 했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이뤄 내었는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거나 여러분의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장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머물며 목회자가 지역 공동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선교사들을 지원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수천 개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한 가지 부분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납니다. 그는 친구나 가족에게 자기는 교리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리는 건전한 교리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일을 시험하실 때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 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비유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나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함으로 너희 중의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6, 7절) 구원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무시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의 차이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은혜, 긍휼, 평화, 기쁨, 그리고 용서로 가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나 성령님, 또는 성경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 사이에서 그러한 지속적인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잠언 13:10).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7절).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지옥의 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그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그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며,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교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지식은 모든 경쟁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7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설교자들이 이 땅에서 설교했을 때와 같이 자신의 영웅담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는 노래를 잘 불렀다고, 불량식품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더 낫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백만 명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께서 주일 학교 규모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침에 스스로 눈을 뜰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니라 감사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공훈 없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로 인해 기뻐할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질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배부르고 이제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처럼 군림하였도다. 너희가 군림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군림하려 함이라(8절). 마치 성령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 네가 훌륭했다면 좋았겠다.”라고 점잖은 풍자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사도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일을 했으며, 더 풍성히 살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높이거나 존경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구원받은 후 그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스스로 본이 될 만큼 본을 완벽하게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책을 마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하여 방금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징과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

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 구절들을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무지하지 않고 지식이 풍부하다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꽤 커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 구절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과 지식과 이해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언제 사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십니다. 이 본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의 본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자유를 사랑과 친절함으로 베풀었던 행위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 우 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섬김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우 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 우 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백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1000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75	로마서 강해	김 영 균	368	13000
76	영어성경의 감추어진 역사	Gail Riplinger	128	6000
77	성경은 음악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James W. Knox	88	3000
78	깨어진 것들	M.R.DeHaan, M.D.	120	5000
79	욥기	Dr. Samuel C. Gipp	48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80	사무엘 킵의 설교 - 1. 성경을 읽는 방법	Dr. Samuel C. Gipp	32	1000
81	최고 수준의 생활	Ruth Paxson	24	1000
82	말라기 강해	James W. Knox	456	16000
83	경이로운 성경의 예언과 성취	전종욱	168	7000
84	영의 세계	LARKIN	160	7000
85	신앙에 관한 질문 순수한 의문에 대한 간결한 답변	James W. Knox	40	1000
86	칭의에서 성화로	김영균	102	5000
87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한다	전종욱	294	8000
88	믿음 사용 설명서	Linton M. Smith	96	4000
89	솔로몬의 인생보고서	전종욱	384	14000
90	룻기	전종욱	144	5000
91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	김영균	56	1000
92	다윗의 실패	James W. Knox	176	7000
93	바울의 기도	W. H. Griffith Thomas	160	7000
94	광야 이야기	James W. Knox	104	5000
95	금송아지 사건	James W. Knox	124	5000
96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의롭게 사는 법	James W. Knox	96	4000
97	건전한 교리	James W. Knox	120	5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31종과 소책자 43종 등 74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옮긴이 **고 정 인**

- 연세대학교 영어학석사
- 한마음미션
- 역서 : 영의 세계, 믿음 사용 설명서, 다윗의 실패, 광야 이야기,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의롭게 사는 법

